

신약교회 예배 양식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New Testament Church Worship

조동호 목사(한민대학교 신학부: 신약신학)

목차

들어가는 말

1. 사도행전 2장 42절의 네 가지 예배의 요소들
2. 고린도전서 16장 20-24절에 나타난 예배의 요소들
3. 주의 만찬 제정사
4. 주의 만찬 설교
5. 주의 만찬 기도

나오는 말

참고목록

Abstract

들어가는 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는 말씀이 나온다. 주후 30년 5월 28일 오순절 성령강림사건이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행각에 최초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 초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전적으로 헌신했던 일은 네 가지 즉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 떼, 기도였다. 이들 네 가지 예배의 흔적들이 과연 신약성경에 남아 있는지, 남아 있다면, 과연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52년에 기록된 데살로니가전후서를 비롯한 바울의 서신들이며 주후 50-60년대에 기록되었다. 사복음서는 70년대 전후에, 가장 나중에 기록된 계시록은 주후 96년에 기록되었다. 예루살렘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 22년이 지나서 데살로니가전후서가 기록되었고, 66년이 지난 후에 계시록이 나왔다. 신약성경 27권의 내용 속에 초기 기독교 예배의 흔적들이 남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이다. 따라서 신약성경 속에 어떤 것들이 초기 예배의 흔적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정리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소개된 예배의 네 가지 요소들의 성격과 내용을 먼저 밝히고, 네 가지의 요소들에 해당되는 흔적들을 추적해 보려고 한다.

1. 사도행전 2장 42절의 네 가지 예배의 요소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네 가지 예배의 요소들은 모두가 서로 동일하게 중요한 동등한 요소들이다(Things that are equal are equal to each other). 함축된 말씀의 뜻이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fellowship.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breaking of bread.
They devoted themselves TO prayer.[NIV]¹⁾

1) See also Alexander Campbell, "A Restoration of the Ancient Order of Things. No. V: Oder of Worship," *The Christian Baptist*, July 4, 1825.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에 전혀 힘쓰니라.
 저희가 교제에 전혀 힘쓰니라.
 저희가 떡 떼에 전혀 힘쓰니라.
 저희가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여기서 첫 번째인 사도의 가르침은 말씀의 예배를 대표하는 것이고, 세 번째인 떡 떼은 주의 만찬의 예배를 대표한다. 전통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말씀의 예배가 1부 예배였고, 주의 만찬의 예배가 2부 예배였다. 제1부 말씀의 예배의 핵심은 성경봉독, 설교, 기도, 찬양 등이다. 제2부 주의 만찬의 예배는 인사와 평화의 입맞춤, 봉헌, 주의 만찬 설교, 주의 만찬 기도, 주의 기도, 주의 만찬에의 초대, 분병례와 참여, 축도 등이다. 따라서 두 번째인 교제와 네 번째인 기도는 말씀의 예배와 주의 만찬의 예배 모두에 포함되는 예배의 요소들이다.

1) 예수님의 공생애 재현

제1부 말씀의 예배와 제2부 주의 만찬의 예배는 예수님의 전 생애, 즉 가장 위대한 예배의 삶이었던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에 대한 재현이다.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말씀의 예배로 표현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주의 만찬의 예배로 표현되었다. 신학자 마르틴 켈러(Martin Kähler)가 복음서를 “긴 서론을 가진 수난사”²⁾라고 지적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그 절정에 도달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은 갈릴리 사역이 선행될 때 비로소 의미가 살아나며, 갈릴리 사역은 예루살렘 사역을 통해서 완성된다.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요 1:14)는 의미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연출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기독교 예배가 어떻게 발전되어왔는가를 보여준다.³⁾

2) 회당예배와 성전예배의 통합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다. 그들은 이미 회당예배와 성전예배에 익숙한 자들이었고, 그들의 모임의 성격을 그들이 이미 몸담고 있었던 유대교와 크게 다르게 보지 않았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유대교 내의 한 분파 즉 예수님을 오실 자 메시아로 믿는 ‘노쯔림’(Notzrim or Aramaic Christians) 또는 ‘메시아적 유대인들’(Messianic Jews)이었다. 따라서 초기 기독교 예배의 형태는 유대교 회당예배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성경봉독과 설교와 기도로 이어지는 제1부 말씀의 예배가 회당예배의 틀 속에서 이뤄진 것들이다.

유대교 예배의 핵심은 성전의 제사예배였으나 주전 586년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감으로써 더 이상 성전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성전제사를 대신하여 그 횡수만큼 기도를 바쳤는데, 그것이 회당예배의 시작이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루 세 번씩 아침(9시), 점심(정오), 저녁(오후 3시)에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유배상태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었으므로 대신에 하루 세 번씩 18개의 기도문으로 구성된 ‘쉐모네 에스레이’(Shemoneh Esrei)를 바쳤다.⁴⁾ 유대인들은 이 회당예배를 흔히 기도회라 부르는데, 기도회는 단지 제사예배를 대신하는 것에 불과하

2) 김득중, 『복음서 신학』(진콜디아사, 1985), p. 97.

3) 장자끄 폰 알렌, 『구원의 축제: 그리스도교 예배의 신학과 실천』 박근원 역(도서출판 진흥, 1993), pp. 17-20, 185-186; 장자끄 폰 알렌, Worship Its Theology and Practice, 정용섭, 박근원, 김소영, 허경삼 공역, 『예배학원론』(대한 기독교 출판사, 1979), pp. 22, 157.

4) <http://www.jewfaq.org/prayer.htm>. 조동호 번역, “쉐모네 에스레이”(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홈페이지-성경연구-신약성경관련, <http://kccs.pe.kr/jewishcal7.htm>).

기 때문이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또 그 후에 성전이 재건되었을지라도, 성전은 예루살렘에 단 하나밖에 두지 않았음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물론이고, 심지어 본토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조차도 회당예배는 필수였으며,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삶을 실질적으로 관장하였던 유대인 공동체의 센터였다. 초기 기독교는 이 유대교회당예배에서 말씀의 예배를, 성전의 제사예배에서 주의 만찬 예배를 발전시켰다.

기독교의 제2부 주의 만찬의 예배가 예루살렘의 성전의 제사예배에서 발전되었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관련된 예표적인 혹은 유형적이고 모형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뜻이지, 실제로 성전예배를 따라 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의 예배는 기독교 예배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것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의 만찬의 예배는 인사와 평화의 입맞춤, 봉헌, 주의 만찬 설교, 주의 만찬 기도, 주의 기도, 주의 만찬에의 초대, 분병례와 참여, 축도 등으로 구성되어졌다.

3) 제1부 말씀의 예배와 제2부 주의 만찬 예배의 초기 단계

주후 30년 오순절 성령강림 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낮 시간대에 주로 성전 영내의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말씀의 예배를 드렸고(요 10:23, 행3:11, 5:12), 저녁 시간대에 주로 집에서 주의 만찬(애찬) 예배를 드렸다(행 2:46, 20:7).

다락방(upper room) 예전으로 알려진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즉 주후 30년 4월 7일 금요일 유월절 식사 중에 떡을 떼어 주실 때와 잔을 채워 주실 때에 각각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전 11:24-25)고 하신 주님의 부탁으로 시작되었다. 이때가 춘분이 지난 첫 음력 보름날 밤이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라고 적고 있다. 여기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는 솔로몬 행각을 말하며, “집에서 떡을 떼며”는 저녁 식사를 말한다.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질 때부터이다. 하루를 시작하는 저녁식사는 막연히 하루 중 한 끼의 식사개념이 아니라, 종교적 식사라 보면 옳다. 저녁 식탁은 제단이요, 가장은 제사장이다.⁵⁾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저녁식사 때에 떡을 떼는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후 57년 드로아교회가 바울 일행과 함께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는 모임을 가졌는데 이때가 저녁이었다(행 20:6-12). 계시록은 “주의 날”(계 1:10)을 언급하였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에 관해 충고할 때에 “매주일 첫날에”(고전 16:1-4)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연보 할 때가 매주일 첫날이라면, 먹으러 모일 때 도 매주일 첫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연보를 주 첫날에 했다면, 예배가 주의 날(주일)에 있었다는 증거이다.⁶⁾

2. 고린도전서 16장 20-24절에 나타난 예배의 요소들

5) 조동호 번역, “카사룻: 유대인의 음식법”(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홈페이지-성경연구-신약성경 관련, <http://kccs.info>).

6) 주후 112년경에 소아시아 비두니아의 로마 지방장관이었던 플리니(Pliny the Younger)가 트라잔 황제에게 보낸 편지는 보다 많은 예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서신은 비두니아 지역의 교회가 정한 날 새벽 미명에 모였다는 것과 예배 중에 연도형식(alternate verses)의 찬양과 십계명과 유사한 엄숙한 맹세를 했으며, 흩어졌다가 저녁에 다시 모여 “보통의 흠없는 음식에 참여했다”는 점을 보도하고 있다. 이 시대의 일요일은 공휴일이 아니었고, 기독교는 불법 종교였으며, 또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노예들이 많아서 낮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말씀의 예배를 새벽시간에 모여서 드렸고, 일과 후 저녁시간에 떡을 떼기 위해서 다시 모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약성경은 초기 예배 양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해놓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 양식을 재구성할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⁷⁾ 고린도전서 16장 20-24절에 나타난 평화의 입맞춤과 마라나타 그리고 축도로 구성된 마지막 인사말을 두고 학자들은 “최초의 기독교 예배순서의 흔적”이라고 말한다. 이들이 로빈슨(J.A.T. Robinson), 리츠만(H. Lietzmann), 보른캄(G. Bornkamm) 등이다. 로버트 웨버(Robert E. Webber)는 이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1) 고린도전서 16:20-24는 “서신의 결미를 장식하는 상투적인 용법일 뿐 아니라, 한 예배 공동체가 다른 예배 공동체에 보내는 인사, 즉 성찬을 들기 위해 모인 성도들 간의 대화”이다. (2) 이 일 절에서 우리는 “그 기원이 바울 이전인, 최초의 기독교 예배의 순서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초기 신약교회의 예배의 기본 구조는 말씀과 주의 만찬에 강조점을 두고 이에 기도와 찬송이 수반되는 2부 구조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고린도전서 16:20-24가 암시하는 바를 따를 것 같으면, 고린도전서가 말씀의 예배 가운데서(in the service of the Word) 이뤄졌어야만 했고, 그 직후에 주의 만찬 예배가 드러졌어야했던 것처럼 보인다.⁸⁾

이런 주장이 옳다면, 고린도전서 16장 20-24절은 다른 성경적 증거들과 함께 초대교회의 예전을 재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주의 만찬 제정사와 관련된 몇 개의 성구들은 ‘성찬 봉헌’, ‘주의 만찬 기도’, ‘분병례’, 간단한 ‘주의 만찬 설교’ 그리고 ‘성찬배수’로 이어지는 예배를 짐작케 하기 때문이다.⁹⁾ 이들 성구들은 고린도전서 11장 23-24절,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4장 30절, 마가복음 14장 22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6절로써 한결같이 “떡을 가지사(봉헌), 축사하시고(주의 만찬 기도), 떼어(분병례), 주시며(성찬배수/聖餐拜受), 가라사대(교훈)”로 되어 있다.¹⁰⁾ 다음은 신약성경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증언들을 종합해서 재구성해 본 예배순서이다.

제1부 말씀의 예배

성경봉독(바울 서신의 봉독)

설교

기도

찬송시(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엡 5:16; 골 3:16; 고전 14:26)

제2부 주의 만찬의 예배

인사와 평화의 입맞춤(고전 16:20-24)

봉헌(“떡을 가지사”)

주의 만찬 설교(“가라사대”)

주의 만찬 기도(“축사하시고”, 고전 10:16)

주의 기도(마 6:9-13)

주의 만찬에의 초대(고전 16:22: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

7)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동호, 『성만찬 예배』(은혜 출판사, 1995, 2004) 제2장 성만찬의 성서적 기원을 참고해 주기 바란다.

8) Robert E. Webber, 『예배학』(*Worship Old and New*), 김지찬 역(생명의 말씀사, 1988), 57쪽의 오역을 원문을 참고하여 수정하여 옮김.

9) 박근원 편저, 『리마 예식서』(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1975), p. 17.

10) Robert Webber, *op. cit.*, pp. 254-257.

를 받을지어다. 마라나타.”)¹¹⁾
 분병례와 참여(“떼어 주시며”)
 축도(고전 16:23-2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바울은 헬라어가 아닌 ‘마라나타’(μαρανατα/ Marana Tha: Lord, come: Our Lord is come)라는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다.¹²⁾ 초기 형태의 예식인 최후의 만찬이 아람어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의 기원을 말해주며,¹³⁾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말씀과 연관된다.¹⁴⁾ 학자들은 이 말이 주의 만찬 기도문에 너무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말하는 회중에게 완전한 종교적 의미를 지닌 채 아람어 그대로 전달되었다고 말한다.¹⁵⁾ ‘마라나타’는 계시록 22장 20절에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헬라어로 번역되어 나타나고 있다. 100년경에 기록된 「디다케」 10장 6절에도 주의 만찬 기도문 마지막 부분에 아람어로 ‘마라나타’가 사용되고 있다. 그 내용들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디다케 10:6]--100년경

만일 어느 누가 기록하면 오고, 기록하지 못하면 회개하라. 마라나타! 아멘.¹⁶⁾

[고린도전서 16:22]--56년경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라나타.

[요한 계시록 22:18-20]--96년경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 .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 .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만일 ~ 마라나타”가 주의 만찬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원하는 주의 만찬 기도의 틀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란 점을 읽을 수가 있다. 요한계시록은 은총과 평화를 비는 인사말(1:5-6)에서부터 ‘마라나타’라는 끝맺는 기도와 마지막 축사(22:20-21)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의 예배모습을 암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6장 20-24절도 평화의 입맞춤과 마라나타 그리고 축도로 구성된 마지막 인사말로 맺고 있다. 그래서 로빈슨(J. A. T. Robinson), 리츠만(H. Lietzmann), 보른캄(G. Bornkamm), 그리고 로버트 웨버(Robert E. Webber)같은 학자들은 이를 두고 “최초의 기독교 예배순서의 흔적” 즉 “서신의 결미를 장식하는 상투적인 용법일 뿐 아니라, 한 예배 공동체가 다른 예배 공동체에 보내는 인사, 즉 성찬을 들기 위해 모인 성도들 간의 대화”라고 주장하고 있다.¹⁷⁾ 만일 주의 만찬이 매주

11) 이 구절은 『디다케』 10장에 나오는 “사람아, 만일 기록하면 오라. 기록하지 않으면 회개하라. 마라나타. 아멘” 과 거의 비슷하다. 정양모 역주,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 디다케』(분도출판사, 1993).

12) ‘마라나타’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과 『디다케』 10장 6절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아람어이며, ‘마르’(Mar)는 주님을 말한다. 바울이 이 아람어 용어를 고린도교회에 쓴 것은 이미 이 용어가 예배 용어로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Gerhard Kittel,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s.v. “maranatha.”

13) 네메세기, 『주의 만찬』 김영환 역(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 1986), pp. 22-26.

14) Oscar Cullmann, *Early Christian Worship* 이선희 역, 『원시 기독교 예배』(대한 기독교 서회, 1984), pp. 12-18.

15) Gerhard Kittel,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s.v. “maranatha”.

16) 정양모 역주,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분도출판사, 1993), 10:6.

일 예배순서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56~100년 사이에 기록된 이들 책들 속에 동일한 형태의 기도문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¹⁸⁾

3. 주의 만찬 제정사

복음서와 고린도전서에서 보도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의 내용을 초기 형태의 예식서로 단정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압박한 재림을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전시대를 거치는 동안 예배 의식의 발전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재림은 지연되었고,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제도와 질서의 문제, 그리고 신앙 교육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것이다. 또한 교회 안팎으로 몰아닥친 물리적인 박해와 이단으로부터도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모종의 조치와 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부터 신약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하였고, 교리(신앙고백)와 교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¹⁹⁾ 그리고 성경이 기록될 때에는 저자들의 교회 형편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마가와 바울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에 관한 보도는 그들 교회의 예식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믿어도 좋을 것이다. 이들 보도 내용은 후대의 발전된 주의 만찬 기도문에서 그 기도문의 일부분인 '주의 만찬 제정사'로써 자리를 잡게 되었다.

1)안디옥교회의 주의 만찬 예전 전승

(1)고린도전서 11장 23-25절

17) Robert E. Webber, *Worship Old and New*(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2), pp. 50-51.

18) 매주일 주의 만찬은 사도들의 전통을 직접 이어받은 교부들의 증언에 의해서 더욱 분명해진다. 1세기 말엽 로마교회의 감독 클레멘트(Clement)는 고린도교회에 보낸 서신 40장과 44장에서 감독의 임무를 주의 만찬을 집행(ministration)하는 자로 언급하면서 이것이 그의 고유한 임무라고 말하고 있다[J. B. Lightfoot, *The Apostolic Fathers*(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6). 이그나시우스도 서머나교회에 보낸 107년경의 편지 8장에서 클레멘트와 동일한 입장을 피력하면서 감독의 고유한 임무가 주의 만찬의 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J. B. Lightfoot, *op cit.*, p. 84.). 여기서 주의 만찬의 집행을 감독의 고유한 임무로 정한 것은 주의 만찬이 주일 예배 그 자체임을 말하는 것이다. 주후 100년경에 기록된 「디다케」 14장 1절은 “먼저 여러분의 과실을 회개함으로써 여러분의 봉헌물을 정결케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자신의 날에는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감사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다(J. B. Lightfoot, *op cit.*, p. 84.). 여기서 봉헌물은 빵과 포도주를 말하며 헌물이나 헌금도 포함될 수 있다. 주후 112년경에 소아시아 비두니아의 로마 지방장관이었던 소(小) 플리니(Pliny the Younger)는 트라잔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지역의 교회가 정한 날 새벽 미명에 모여 연도형식(alternate verses)의 찬양을 그리스도에게 돌리며, 십계명과 같은 엄숙한 맹세를 했으며, 흠뻑 젖었다가 저녁에 다시 모여 “보통의 흠 없는 음식에 참여했다”고 보도하고 있다[Everett Ferguson, *Early Christians Speak*(Abilene, Texas: Biblical Research Press, 1981), p. 81.]. 여기서도 “떡을 떼며”라든지 혹은 “흠 없는 음식”이 주의 만찬과 애찬이 분리되기 이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가 애찬 형식의 주의 만찬을 모일 때마다 거행했다는 점이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주의 만찬을 거행했다는 사실은 순교자 저스틴(Justin)의 글 속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저스틴은 그가 쓴 「첫 번째 변증서」 65-67장에서 2세기 중반의 교회들이 주일날 모여서, 성경을 봉독하고, 집례자로부터 설교를 듣고, 모두 일어서서 기도한 후에, 집례자에 의해서 빵과 물로 희석된 포도주의 봉헌과 성별의 기도와 분별례와 헌금과 구제가 이루어졌다고 확실하게 전하고 있다(*Ibid.*, pp. 81-117; 네메세기, *op cit.*, pp. 90-91.). 예배 후 노약자나 환자들을 위해서 집사들이 축성된 성찬을 배달하였다.

19) 김득중, 『신약성서 개론』(컨콜디아사, 1989), p. 242.

²³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²⁴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²⁵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누가복음 22장 15-20절²⁰⁾

¹⁴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¹⁵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¹⁶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¹⁷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¹⁸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¹⁹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²⁰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2)로마교회의 주의 만찬 예전 전승

(1)마가복음 14장 22-25절

²²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²³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²⁴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²⁵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마태복음 26장 26-29절

²⁶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²⁷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²⁸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²⁹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3)두 전승의 대조²¹⁾

20) 누가복음 22장 15-20절은 사본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긴 본문 이외에도 짧은 본문을 가진 사본들이 몇 가지 있다. 예를 들면, 베자 사본(D)과 몇 개의 라틴 사본들이 17-18-19a절로 되어 있고, 시리아 개역 사본(Curetonian Syriac)에는 19a-17-18절로 되어 있다. 또 다른 시리아 개역 사본(Philoxenian Syriac)과 몇 개의 이집트 개역 사본에는 19-20절만 있고, 시내산 시리아 개역 사본에는 19-20a-17- 20b-18절로 되어 있다[William Barclay, *The Lord's Supper*(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7), pp. 35-40; I. Howard Marshall, *Last Supper and Lord's Supper*(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0), pp. 30-56 참고].

21) A. Marchadour, et al., 『성서에 나타난 성체성사』 안병철 역(카톨릭 출판사, 1989), pp. 70-71 참고.

구분	예루살렘교회 전승 (최후의 만찬)			
	로마교회 전승		안디옥교회 전승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시간상황	저희가 먹을 때에	저희가 먹을 때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에 대한 형식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례하시고	축사(사례)하시고
떡에 대한 말씀	받아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라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반복령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잔에 대한 형식	사례하시고	사례하시고		
시간상황			저녁 먹은후에	식후에
잔에 대한 행위	저희에게 주시며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잔에 대한 말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은 내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안디옥교회와 로마교회의 두 전승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다. 마태가 마가의 자료를 따르고 있다는 스트리터(B. H. Streeter)의 사문서 가설에 따르면, 마가 자료의 출처를 로마로 보고 있고, 마태가 마가 자료를 92%나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²²⁾ 이 가설의 신빙성 여부는 신학자들의 판단에 맡기더라도, 마태는 마가의 애매모호한 구절 “많은 사람을 위하여” 앞에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를 첨가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인류의 대속을 위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누가의 보도는 안디옥교회의 전승을 기본으로 하고 마가복음의 일부를 참고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누가는 안디옥교회의 전승과 마가복음의 내용이 거의 같다는 사실을 알고 더 오랜 전통을 지닌 안디옥교회의 전승을 따랐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사실은 헬라이어 원문 대조서를 통해서 명백하게 입증된다.²³⁾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14-18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을 따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누가는 이 부분을 만찬 진행의 맨 처음 부분으로 옮기고 그 대신 유다 배반의 예언을 만찬 다음으로 도치시키고 있다. 이는 만찬 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한 손질이었던 것이다.

안디옥교회의 예배전통이라고 믿어지는 고린도전서 11장 23-25절의 내용이 가장 오래된 주의 만찬 제정사라고 믿어진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2) Donald Guthrie, *New Testament Introduction*(Inter-Varsity Press, 1970), pp. 121-87. B. H. Streeter는 마가복음과 Q자료 이외에도 마태와 누가의 특수자료를 포함하여 사문서설을 주장하였으며, 마태의 자료를 M, 누가의 자료를 L로 나타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저작된 복음서로, Q자료는 안디옥에서, M은 예루살렘 강화문서로, L은 구전적인 가이사라 전승을 나타내 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23) Albert Huck, *Synopsis of the First Three Gospels*. Revised by Heinrich Greeven(Tübingen: J.C.B. Mohr, 1981), pp. 238-241.

첫째, 마가와 마태의 보도에는 떡과 잔이 연달아 분배되고 있고, 바울이나 누가의 보도에는 식사 전에 떡에 대한 사례가 있고 식사 후에 잔에 대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²⁴⁾ 여기서 유대인의 식사 관습을 따르고 있는 바울과 누가의 보도가 식사가 생략된 예식서의 모습을 갖춘 마가와 마태의 보도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이다.

둘째, 마가와 마태의 내용이 신학적으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 준다. 고린도전서는 주의 만찬을 예레미야가 약속한 새 언약(렘 31:31-34)에 따른 계약 갱신 의식으로만 언급하고 있는 반면, 마가와 마태는 새 언약에 대한 언급은 물론 역사적 예수님에게 소급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강조하고 있다. 누가도 마가의 이 부분의 자료를 따랐다.

셋째, 고린도전서는 출애굽기 24장 48절에 근거하여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고만 한 반면, 누가는 이 말에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는 말을 첨가하였고, 마가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라고 발전시키고 있으며, 마태는 한 발 더 전진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라고 적고 있다. 이로 보건 데, 유대 율절과 예수님의 죽음이 발전적으로 비교되고 있고, 모세의 피 뿌림을 통한 언약의 맥락에서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그리스도의 피 흘림 안에서 성취된 대속의 신학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마가는 아직 예수님의 죽음의 신학적 의미를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한 채 ‘새 언약’과 관련시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만 한 반면, 마태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말함으로써 진전된 대속의 교리를 엿보게 한다.²⁵⁾

마가와 마태의 보도와는 달리 바울과 누가는 떡에 대해서만 ‘사례’ 혹은 ‘감사기도’의 의미를 가진 εὐχαριστίας를 단 한번 쓰고 있다. 한편 마가와 마태는 잔에 대해서는 εὐχαριστίας를 사용하였고, 떡에 대해서는 ‘찬양’ 혹은 ‘축복’의 뜻을 가진 εὐλογίας를 쓰고 있다.

최후 만찬을 거듭 행하라는 반복령이 마가복음서나 마태복음서에는 없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명령은 고린도전서에 떡의 설명어와 잔의 설명어에 이어 각각 나오고, 누가복음서에서는 떡의 설명어 다음에 한 차례만 나온다. 이 반복 명령을 초대교회의 산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²⁶⁾ 이 예식서의 역사성이나 성격으로 볼 때, 역사적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할 것이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부탁 없이 임의로 처음부터 매주 주의 만찬 예식을 행하였기보다는 예수님의 반복령에 근거해서 모일 때마다 이를 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바울이 이 예식 전통을 회심(34-38년경) 이후 다메섹 교회로부터 받았거나 43-45년경 안디옥교회로부터 받아들인 것으로 믿고 있다.²⁷⁾ 이렇듯 가장 오래된 초기 예식서에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명령이 두 번씩이나 언급되고 있는 점은 교회 창립 직후 예배 상황, 즉 매주 주의 만찬이 예수님의 명령이요, 사도들의 전통이었을 보여준다. 그러나 주의 만찬이 이미 예배의 중심이 되어 버린 70년대의 교회 전통에서는 예수님의 반복령이 사실상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예수님의 반복령이 아무리 늦추어 잡아도 교회 창립 후 25-26년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초대교회의 예배전통이 된 것처럼, 오늘의 개신교 예배도 이 명령에 따라서 새로운 전통을 세워 가야 하는 일이다.

24) 김균진, *op. cit.*, pp. 664-65.

25) Howard Clark Kee, 『신약성서의 이해』 서 중석 옮김(한국 신학 연구소, 1990), pp. 176-77.

26) 정양모, *op. cit.*, pp. 120-21.

27) 김균진, *op. cit.*, pp. 664-65; 네메세기, *op. cit.*, pp. 24-25.

4. 주의 만찬 설교

신약성경에는 주의 만찬과 관련된 설교들이 몇 개 있다. 이러한 것들이 예배 때에 사용된 초기 형태의 주의 만찬 설교였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주로 요한복음과 고린도전서에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것들만 여기에 언급하고자 한다.

1)요한복음 6장 53-58절

⁵³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⁵⁴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⁵⁵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⁵⁶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⁵⁷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⁵⁸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오스카 쿨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주의 만찬 예식에서 행하여 졌던 설교로 간주하고 있다. 요한 공동체가 전승 받고 있는 주의 만찬의 교훈으로 본 것이다. 요한 복음서에는 성례전과 관련된 많은 구절들이 있을 뿐 아니라, 본문 말씀 속에서도 주의 만찬 때에 쓰이는 용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몸’ 대신에 ‘살’을 쓰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하신 주의 만찬 제정사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였거나 영지주의자들을 의식하여 의도적으로 ‘몸’ 대신 ‘살’을 썼을 가능성에 대해서 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과 음료로 내어 주셨으므로 성례에 참여하여 이를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는 부활과 영생의 축복이 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²⁸⁾

2)고린도전서 5장 7-8절

⁷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⁸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전 경연은 바울의 이 글을 주의 만찬에 관한 언급으로 보고 있다. 바울은 기독교 공동체를 묵은 누룩인 옛 출애굽 공동체에 비교해서 누룩 없는 순수한 반죽, 또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암시하고 있다. 또 묵은 누룩의 축제인 유대인의 유월절 식사가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의 축제인 교회의 주의 만찬으로 대치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새 출발을 한 기독교 공동체는 정결하고 거룩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²⁹⁾

3)고린도전서 10장 1-4절

28) Cullmann, *op cit.*, pp. 128-140; 네메세기, *op cit.*, pp. 58-74.

29) 전경연, 『한국주석: 고린도전서』(성서 교재 간행사, 1989), pp. 128-131.

¹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²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³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⁴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기독교는 성례전적인 공동체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 아래서와 바다 가운데서 다 침례를 받고 광야에서 다 같은 신령한 만나와 신령한 반석의 물을 마셨던 것과 같이 기독교인들도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다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주의 만찬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생수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동참한다. 여기서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은 헬라 교회가 사용하던 주의 만찬 술어들이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억압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너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의 물을 마신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장차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건너(계 15:2)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실(계 3:20) 때까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선취적으로 참여하게 됨을 암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³⁰⁾

4) 고린도전서 10장 16-17절

¹⁶우리가 축복하는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례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례함이 아니냐? ¹⁷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례함이라.

전 경연은 바울의 이 글을 교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교리 단편이라고 말한다. 이 교리 단편이 전승된 원래의 형태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해 감사드리는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³¹⁾ '우리가 축복하는바'는 초대교회가 주의 만찬을 나눌 때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증거가 되는 표현이다. '축복의 잔'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에서 마시는 세 번째 잔인 '감사의 잔'과 관련이 있다. '감사의 잔'은 다음과 같은 기도와 함께 마신다. "복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오, 포도나무의 열매를 만드신 분이십니다."³²⁾ '우리가 떼는 떡'에서 볼 수 있는 표현도 역시 유대교적인 것이다. 유월절 식사에서 떡은 가장(家長)의 다음과 같은 감사의 기도와 함께 먹게 된다. "복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지상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당신의 명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들로 누룩을 넣지 아니한 작은 떡 조각들을 먹게 하셨습니다."³³⁾

'그리스도의 피에 참례함', '그리스도의 몸에 참례함', '한 몸', 그리고 '한 떡에 참례함'이 말해 주듯이, 주의 만찬의 중요성은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됨을 인식하는 데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소유이며(행 20:28), 그리스도의 몸이며, 신자는 그 몸의 지체이다(고전 12:27; 엡 1:23, 4:12, 5:30).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신"(고전 12:13) 구원받은 성도의 공동체요, 성스런

30) *Ibid*, pp. 203-204.

31) *Ibid*, pp. 219-220.

32) Barclay, *op cit*, pp. 22-25.

33) *Ibid*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의 몸의 각 부분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적으로 의도적으로 구조적으로 하나이며 우주적이다(엡 4:3-5).

5. 주의 만찬 기도

1) 회당예배 기도문

초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 축제와 마찬가지로 성전과 회당 예배에서의 기도문에도 익숙해 있었을 것이다.³⁴⁾ 유대인들은 신앙고백의 일종인 쉘마(Shema)를 암송하였고, 축복 기도인 쉘모네 에스레이(Shemoneh Esrei)와 베라코트(Berakoth)를 가장 중요한 기도로 암송하였다.³⁵⁾ 유대인들의 이러한 전례 요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초대교회 안에 스며들었다는 성경적인 증거들이 있다. 시편이나 베라코트가 인용되고 있고, 신약성경에 자주 쓰이는 ‘아바’,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시다’ 등이 유대교적인 예배 용어들이다.³⁶⁾ 특히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가운데 “영적인 조명을 갈구하는 기도, 애찬시에 떡 위에 대한 축사기도, 창조 사실을 고백하는 기도, 중보기도, 신앙 고백 기도, 죄의 용서를 비는 기도, 송영”³⁷⁾ 등에서 쉘모네 에스레이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³⁸⁾

2) 신약성경교회의 찬송과 기도

초대교회가 예배 때에 불렀던 찬송이나 기도문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 많지 않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예배 때에 기도와(행 2:42),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엡 5:16; 골 3:16)하는 찬송시(고전 14:26)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공동기도로써는 맛디아를 선택할 때 드렸던 기도(행 1:24), 사도들이 옥에서 풀린 후에 드린 교회의 기도(행 4:24-30), 그리고 일정한 운율(韻律)과 훌륭한 음조(音調)를 지닐 뿐 아니라, 세 개의 연(聯)과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후렴으로 된 기도(엡 1:3-14)가 있다. 찬송시로써는 마리아의 찬양(눅 1: 46-55), 사가랴의 예언(눅 1:68-79), 로고스 찬양(요 1:1-18), 지혜송(롬 11:33-36), 사랑송(고전 13장), 대림송(빌 2:6-11), 기독송(골 1:15-20; 딤편 3:16) 등이 있고, 그 밖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있다(딤후 2:11-13; 히 1:3).³⁹⁾

34) 성전과 회당을 통해서 교회가 물려받은 유대적 유산에 대해서는 Ralph Martin, 『초대교회 예배』 오창윤 역(도서출판 은성, 1990), pp. 35-48 참고.

35) 조동호, “선민의 조건: 기도생활”(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홈페이지-성경연구-신약성경관련); 조동호 번역, “유대인들의 기도와 축복”(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홈페이지-성경연구-신약성경관련); Gareth L. Reese, *New Testament History: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Acts*(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1983), pp. 494-496; Burkhard Neunheuser, 『문화사에 따른 전례의 역사』 김인영 옮김(분도 출판사, 1992), p. 28. 초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하루 세 번씩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각각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였다(시 55:17; 119:164; 행 2:15; 3:1; 10:9).

36) 신약성경에 나타난 유대교의 전례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시편(행 4:24-30; 엡 5:19), 베라코트(마 11:25f; 요 11:41; 고전 14:16; 엡 1:3-14; 3:20-21), 거룩하시다(계 4:8 참조), 아멘(고전 14:16; 계 1:6,8; 5:14; 7:12), 할렐루야(계 19: 1-6 참조), 아바(막 14:36; 롬 8:15; 갈 4:6). Burkhard Neunheuser, *op. cit.*, p. 29 참고.

37) Robert E. Webber, 『예배학』(*Worship Old and New*), 김지찬 역(생명의 말씀사, 1988), p. 60.

38) 조동호 번역, “쉘모네 에스레이”(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홈페이지-성경연구-신약성경관련. <http://kccs.pe.kr/jewishcal7.htm> 참고).

39) Ralph Martin, *op. cit.*, pp. 49-89. 김소영, 『현대 예배학』(대한 기독교 서회, 1993), p. 253.

신약성경이 제시하는 자료 가운데 주의 만찬과 관련된 기도문은 기껏해야 인사말이나 송영문구 정도이다.⁴⁰⁾ 축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모든 예배는 축도로서 끝을 맺는다. 그 대표적인 원형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것이다. 이러한 축도는 주의 만찬을 시작하기 전이나 혹은 주의 만찬을 마친 다음 집례자가 회중에 게 선포하는 기도문이다.⁴¹⁾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예문들이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지어다(고후 13:1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고전 16:23-24).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 지어다 아멘(갈 6:18).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 지어다(빌 4:23).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 지어다 아멘(계 22:21).

다음은 인사말이나 송영문구들이다. 아멘으로 화답되는 것이 특징이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롬 1:25).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 지어다 아멘(롬 11:36; 갈 1:5).

*저는 만물 위에 계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니라 아멘(롬 9:5).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 지어다 아멘(롬 16:27).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빌 4:20).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계 1:5-6).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 지어다 아멘(계 22:20-21).

3)주기도문

주기도문도 예배문의 하나였을 가능성이 크다. 주기도문 후미에 찬양문구가 첨가된 것을 보아도 그렇고, 가톨릭교회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전통적인 예전에 기도문으로 포함되어 있는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주기도문의 찬양문구는 회중의 응답 문구였을 것이다. 하워드 마셜(I. Howard Marshall)은 주의 기도가 주의 만찬에서 주의 재림을 기원하는 마라나타와 관련하여 주의 만찬 기도문으로써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⁴²⁾ 오스카 쿨만(Oscar Cullmann)은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로마서 8장 15절이 “아바 아버지”를 지칭하는 것도 주기도문의 “아버지여”와 관련하여 예배 때에 사용한 것으로 믿고 있다.⁴³⁾ 누가와 마태의 주기도문은 각각 다음과 같다.

²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³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⁴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눅 11: 2-4)

40) Oscar Cullmann, *op. cit.*, p. 5.

41) 박근원, 『오늘의 예배론』(대한 기독교 서회, 1992), p. 120; Cullmann, p. 27.

42) I. Howard Marshall, *op. cit.*, pp. 116-117.

43) Oscar Cullmann, *op. cit.*, p. 13.

⁹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¹⁰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¹¹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¹²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¹³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마 6:9-13).

마태의 주기도문 가운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부분은 교회가 예배용으로 첨가한 응답송이 분명하다. 이 부분에 대한 사본상의 차이는 상당히 다양하다.⁴⁴⁾ 끝 부분에 응답송이 첨가된 마태의 주기도문은 누가의 것보다도 훨씬 길고 잘 다듬어져 있다. 위의 두 자료가 사문서설의 신봉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안디옥 전승이라고 일컬어지는 공통자료(Q자료)에서 나온 것인지, 혹은 예루살렘 강화문서(M자료)와 가이사랴 전승자료(L자료)에서 각각 유래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예루살렘과 가이사랴가 그리 멀리 떨어진 지역이 아닐 뿐 아니라, 두 곳이 모두 유대지방이라는 점에서 M자료와 L자료의 차이를 말하기가 쉽지 않다.

4) 『디다케』의 주의 만찬 기도문

앞서 언급되었듯이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주의 만찬 기도문으로써는 아랍어로 보존된 ‘마라나타’이다. 『디다케』 9장과 10장에 실린 기도문은 가장 오래된 주의 만찬 기도문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도문은 유대교에 기원을 둔 것으로서 기독교적인 기도문으로 변형된 것이다. 그리고 이 기도문은 주의 만찬에 관한 교훈 속에 들어 있다. 『디다케』의 기도문은 다음과 같다.

성만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감사 드려야 한다. 즉 먼저 잔에 관해서는, “우리 아버지시여, 당신 종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신 당신의 종 다윗의 거룩한 포도나무로 인하여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당신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비나이다.” 빵을 떼에 관하여는,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는 주께서 당신의 종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신 생명과 지식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당신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비나이다. 이 떼어진 빵이 산상 위에서 흩어지고 함께 모아져서 한 덩어리가 된 것처럼, 당신의 교회가 땅 끝으로부터 당신의 나라에로 함께 모아지기를 비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과 권세가 세세토록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가 아니고서는 아무라도 여러분의 성만찬을 먹거나 마시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주께서 또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먹은 후에는 다음과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주께서 당신의 종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거하게 하신 당신의 거룩한 이름과 당신의 종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신 지식과 신앙과 불멸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당신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비나이다. 전능하신 주여, 주는 당신의 이름을 인하여 만물을 만드시고, 또한 사람들이 주께 감사 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원기를 회복케 하는 양식과 음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당신의 종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신령한 음식과 음료와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 드립니다. 당신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비나이다.”

“주여, 주의 교회를 생각하사 모든 악에서 구하옵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완성하옵소서. 이리하여 이 거룩하게 된 교회를 땅 사방에서 주께서 예비하신 나라로 불러 모으소서. 영광과 권세가 세세토록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총이 임하시고, 이 세상이 지나가기를 비나이다. 다윗의 하나님께 호산나. 사람아, 만일 거

44) Kurt Aland, et al., ed., *The Greek New Testament*(United Bible Societies, 1983), 헬라어 성경 마태복음 6장 13절 각주 참조.

룩하면 오라. 기록하지 않으면 회개하라. 주여 오소서(마라나타). 아멘.”⁴⁵⁾

나오는 말

이상으로 신약교회의 예배양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신약성경 속에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예배형식에 대한 정보는 없다. 신약성경은 초대교회의 형편과 역사적 정황에서 요구되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쓰인 글들이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구체적인 예식서가 당대에는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 속에는 초기 기독교 예배의 흔적들이 다수 남아 있어서 예배순서를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이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담긴 네 가지 예배의 요소들, 고린도전서 16장 20-24절에 나타난 예배의 요소들, 예수님이 남기신 주의 만찬 제정사, 주의 만찬 설교들과 주의 만찬 기도들을 통해서 신약교회 예배양식의 재구성을 시도하였다. 이는 이후 역사 속에서 나타난 전통적인 기독교 예배들과 비교될 수 있으며, 옳은 예배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확신이다.

순교자 저스틴에 의하면, 2세기 중반의 교회들은 주일날에 모여서 성경을 봉독하고 집례자(the president of the brethren)로부터 설교를 들었으며, 일어서서 다함께 기도하였다. 또 집례자의 설교 후에 떡과 물로 희석된 포도주의 봉헌과 성별의 기도와 분병례와 헌금과 구제가 있었다. 또한 집례자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떡과 포도주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마음껏 올렸다. 주후 380년경 현재의 가톨릭교회 성만찬 제1양식이 정식화되기까지는 주교는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를 올릴 수 있었다.

최초의 성문화된 주의 만찬 예식문은 3세기 초(215년경)에 로마의 감독 히폴리투스가 기록한 『사도의 전승』⁴⁶⁾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사도의 전승』에 영향을 받았던 동방교회는 오늘날까지도 큰 변화 없이 박해시대의 예전 형태를 반영하고 있고, 이러한 동방교회의 보수주의가 초기 기독교 예배의 원형 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⁴⁷⁾

한편 서방에서는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국교로 자리를 잡게 된 4세기 후반부터 예전이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하여 로마와 칼타고 중심의 예전, 밀라노를 중심으로 한 암브로시우스의 예전, 스페인의 비시고딕 예전, 그리고 프랑스의 갈리아 예전이 생겼고,⁴⁸⁾ 로마 전문인 성만찬 기도문 제1양식은 380년대에 로마에서 헬라어 미사가 라틴어로 바뀌면서 거의 대부분이 고정되었다.⁴⁹⁾ 이러한 기도문은 5-8세기에 이르러서 로마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 장엄한 형태로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⁵⁰⁾ 그러나 이때부터 예배는 이교문화의 다량 유입과 라틴어 예배의 고착 등으로 보는 예배 또는 연출미사시대가 열림으로써 단순한 신약교회 예배의 틀이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16세기이후에도 유럽의 교회들은 국교였기 때문에 종교 개혁가들의 개혁에 한계가 있었다. 츠빙글리이후 스위스와 프랑스의 개혁주의 교회들에서는 주의 만찬예배가 자주 이뤄지지 못했지만, 여전히 제1부 말씀의 예배와 제2부 주의 만찬 예배가 주류를 이뤘다. 이후 신대륙에

45) 정양모 역주,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분도출판사, 1993), 10:6. J. B. Lightfoot, *The Apostolic Fathers*(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6), pp. 126-127; Everett Ferguson, *Early Christians Speak*(Abilene, Texas: Biblical Research Press, 1981), pp. 93-105.

46) 이형우 역주, 『히폴리투스, 사도전승』(분도출판사, 1992).

47) 박은규, 『예배의 재발견』(대한 기독교 출판사, 1990), p. 86.

48) Burkhard Neunheuser, *op. cit.*, pp. 67-68.

49) 쓰지야 요시마사, <<미사: 그 의미와 역사>> 최석우 옮김(성바오로 출판사, 1991), p. 125.

50) Burkhard Neunheuser, *op. cit.*, p. 74.

로의 이주와 종교의 자유로 인해서 유럽의 전통들은 미국식 민주주의와 개혁정신의 풍토에서 힘을 잃어가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17-19세기 신앙고백(신조)주의, 경건주의, 대각성운동, 20세기 오순절운동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독교 예배는 오랜 전통의 틀이 점차 깨졌고, 설교에서 클라이맥스를 이루려는 특성이 있어왔으며, 결국 오늘의 기도회 성격의 예배로까지 분화되었다. 종교개혁이후 오늘날까지 개신교 예배에서 가장 크게 치명타를 입은 것이 예배의 핵심이자 클라이맥스였던 주의 만찬이다. 가장 핵심적인 본 예배가 가장 소홀히 취급당하여 일 년에 단 두서너 차례로 축소당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2천년 역사 속에서 지속되어져 온 전통적인 예배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예배가 제1부 말씀의 예배와 제2부 주의 만찬 예배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조차 생소할 것이다. 대다수의 개신교회들이 주의 만찬을 거의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약교회의 예배형식을 살펴본 이유는 박해시대에 하나님께 헌신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수하고 순결한 예배의 정신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만한 단순한 예배의 형태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자는데 있다. 오늘날 기독교 예배의 틀에서 가장 시급히 개혁되어야 하고, 신약교회예배로 회복되어야 할 대상이 주의 만찬 예배이다. 성경적인 것보다 더 뛰어나고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 따라서 신약교회의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오늘날 신구교 모두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참고목록

- 김득중. 『복음서 신학』 컨콜디아사, 1985.
 김소영. 『현대 예배학』 대한 기독교 서회, 1993.
 박근원 편저. 『리마 예식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1987.
 박근원. 『오늘의 예배론』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박은규. 『예배의 재발견』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90.
 전경연. 『한국주석: 고린도전서』 성서 교재 간행사, 1989.
 정장복. 『예배학 개론』 종로서적, 1989, 재판.
 조동호, 『성만찬 예배』 은혜출판사, 1995, 2004.
 조동호,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07.
 조숙자 편저. 『교회의 성찬 예전과 음악』 장로회 신학대학 교회 음악 연구원, 1988.
 최윤환. 『간추린 미사 해설』 가톨릭 출판사, 1991.
- Aland, Kurt. Et al. Ed., *The Greek New Testament*. United Bible Societies, 1983.
 Barclay, William. *The Lord's Supper*.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7.
 Campbell, Alexander. "A Restoration of the Ancient Order of Things. No. V: Oder of Worship," *The Christian Baptist*, July 4, 1825.
 Ferguson, Everett. *Early Christians Speak* Abilene, Texas: Biblical Research Press, 1981.
 Guthrie, Donald. *New Testament Introduction*. Inter-Varsity Press, 1970.
 Huron, Roderick E. Compiler. *Christian Minister's Manual*. Cincinnati: Standard Publishing Co., 1991.
 Kittel, Gerhar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S.v. "maranatha."
 Lightfoot, J. B. *The Apostolic Father*.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6.
 Marshall, I. Howard. *Last Supper and Lord's Supper*.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0.
 Reese, Gareth L. *New Testament History: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 Acts. 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1983.
- Webber, Robert E. *Worship Old and New*.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2.
- 네메세기. 『주의 만찬』 김영환 역. 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 1986.
- 부르크하르트 노인호이저(Burkhard Neunheuser). 『문화사에 따른 전례의 역사』 김인영 옮김. 분도 출판사, 1992.
- 이형우 역주. 『히브리딴스, 사도전승』 분도출판사, 1992.
- 장자끄 폰 알멘. *Worship Its Theology and Practice* 정용섭, 박근원, 김소영, 허경삼 공역. 『예배학원론』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79.
- 장자끄 폰 알멘. 『구원의 축제: 그리스도교 예배의 신학과 실천』 박근원 역. 도서출판 진흥, 1993.
- 정양모 역주.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 디다케』 분도출판사, 1993.
- 쯔지야 요시마사. 『미사: 그 의미와 역사』 최석우 옮김. 성바오로 출판사, 1991.
- Cullmann, Oscar. *Early Christian Worship* 이선희 역. 『원시 기독교 예배』 대한 기독교 서회, 1984.
- Huck, Albert. *Synopsis of the First Three Gospels*. Revised by Heinrich Greeven. Tübingen: J.C.B. Mohr, 1981.
- Kee, Howard Clark. 『신약성서의 이해』 서중석 옮김. 한국 신학 연구소, 1990.
- Marchadour, A. Et al. 『성서에 나타난 성체성사』 안병철 역. 가톨릭출판사, 1989.
- Neunheuser, Burkhard. 『문화사에 따른 전례의 역사』 김인영 옮김. 분도 출판사, 1992.
- Webber, Robert E. 『예배학』 *Worship Old and New*. 김지찬 역. 생명의 말씀사, 1988.
- 조동호 번역, “쉐모네 에스레이”(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홈페이지-성경연구-신약성경관련, <http://kccs.pe.kr/jewishcal7.htm>).
- 조동호 번역. “유대인들의 기도와 축복”(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홈페이지-성경연구-신약성경관련).
- 조동호 번역. “카샤룻: 유대인의 음식법,”(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홈페이지, 성경연구, 신약성경관련, [+http://kccs.info](http://kccs.info)).
- 조동호. “선민의 조건: 기도생활”(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홈페이지-성경연구-신약성경관련).
- 정철범. “한국 성공회 성찬 예식문 연구.” 『은곡 김소영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 교회의 예배와 선교의 일치』 대한 기독교 서회, 1990.
- <http://www.jewfaq.org/prayer.htm>.

ABSTRACT

This writing is "A Study on the New Testament Church Worship." We read in the Acts chapter 2 verses 42 as follows: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and to the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prayer." Since the Advent of the Holy Spirit on the Day of Pentecost in 30 and since the first Christian Church was begun at the Solomon's Colonnade of the Jerusalem Temple, the contents that the earliest Christians devoted themselves to were four things such as the apostles' teaching, the fellowship, the breaking of bread and prayer.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New Testament Scriptures whether there are remains of these four elements of worship and, if so, how many remains there are.

The first written books among the New Testament Scriptures are Thessalonians written in 52 as well as Pauline Epistles written in between 50s and 60s. And four Gospels were before and after 70s, and the Revelation in the last was written in 96. Thessalonians were written after 22 years and Revelation came out after 66 years since the first Christian Church in Jerusalem was begun. These periods of gap is enough time for the New Testament Scriptures to remain the earliest Christian liturgical sequence which we possess and which is pre-Pauline in origin. Thus the purpose of this writing is to research what are the remains of the earliest Christian liturgical sequence and arrange them. For this purpose the writer tried to trace the remains of four contents of worship after he clarified the character and content of the four elements based on Acts chapter 2 verses 42.

There is no specific and detailed information on the Christian worship liturgical sequence in the New Testament Scriptures because the New Testament Scriptures were written to meet the needs of the life situations and historical circumstances of the early Christian churches such as persecutions from outside, heretics from inside and the growth of the mission churches. Thus there could be no specific liturgies in those days such as these days. Nevertheless, there are many remains of the earliest Christian liturgical sequence in the New Testament Scriptures so that we may able to remake up the earliest Christian worship service. So the writer tried to remake up the earliest Christian worship service through the contents of worship in Acts 2:42 and the First Corinthians 16:20-24, the Eucharistic address of Jesus in the Gospels and Eucharistic sermons and prayers in the New Testament Scriptures. And the result of the remaking-up the earliest Christian liturgical sequence could be compared with the historical and traditional worship liturgies and be the test of right worship God may please. This is the writer's confidence.

The reason that the writer examined the earliest Christian worship sequence is to restore the ancient order of things that is the basic of Christian worship as we learn what were the pure and genuine spirit of Christian worship of the New Testament Church Christians who dedicated themselves to God in those days of persecution and what were the simple sequence of the Christian worship pleased and acceptable to God. The Lord's Supper worship is the most urgent thing that must be reformed among the contents of today's Christian worship and the thing that must be restored to the New Testament Church worship. There are no such things far more valuable and superior to the biblical things. Therefore, the most urgent problem that today's Old and New Christianity must solve is to restore the New Testament Church worship.